

## 도엔지 절

오시노무라(마을)에 있는 도엔지 절의 역사는 사후 고보대사(弘法大師)로 알려지게 된 고승 구카이가 9세기 초 동일본을 순례하는 여행에 나섰을 당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후지산 북동부에서 신성한 샘을 발견한 구카이는 예로부터 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온 밀교의 본존 대일여래를 모시기 위해 참배소를 건립했습니다. 1707년의 호에이 분화(寶永噴火)에서는 무사했지만 그 이후 태풍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171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고, 현재의 본당과 고리(절의 주방), 종루문(鐘樓門)은 19세기에 재건되었습니다.

본존은 깨달음을 얻은 신자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불로 그 양 옆에는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는 1317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목조관음상이 있습니다. 이 관음상은 원래 근처에 있던 시보쿠사센겐 신사의 것으로 이 신사에 모셔져 있는 여신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상을 만든 조각가가 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신토와 불교가 혼합된 형태의 신앙이 믿어졌는데(신불습합), 도엔지 절도 시보쿠사센겐 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이르러 일본 정부가 신토와 불교를 분리하고 신사에서 불교의 모든 영향을 배제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도엔지 절은 후지코 순례자들이 후지산을 오르기 전에 몸을 정화하는 오시노 핫카이의 개발을 감독했습니다. 후지코 신앙은 막부가 후지산으로의 입산을 규제해야 했을 정도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때 도엔지 절은 순례자들의 통행이 허용된 유일한 사찰로서 당시 빈곤에 허덕였던 오시노무라는 몰려드는 순례자들 덕분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